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 모델 연구*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이 정 연** · 최 효 진***

목 차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분석
 - 3) 연구범위 및 방법
2. 사례분석
 - 1) 로컬리티 기반 지역학 아카이브
 - 2) 다양한 이용자군 고려한 서비스 제공
 - 3) 저작권 관리를 통한 위험관리
 - 4) 협력 및 공유 기반 네트워크 운영
3.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 1) 분석 범위 및 방법
 - 2) 아카이브 환경 분석
 - 3) 컬렉션 분석
 - 4) 이용자 분석
 - 5) 아카이브시스템 분석
4. 활용 중심 제주학아카이브 체계 개선 방향
 - 1) 네트워크 기반 제주학아카이브 운영
 - 2)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
 - 3) 다양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 4) 저작권 관리
5. 결론

* 이 연구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발주한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재구성하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박사수료.

■ 투고일: 2020년 06월 08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6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6월 16일

[국문초록]

로컬리티 기반 아카이브는 지역에서 과거에 있었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수집 및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을 중심으로 고민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학 연구, 출판, 교육 산출물 혹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원들을 축적하여 현재 서비스 중인 제주학아카이브 분석하여 지역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로컬리티 기록화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록관의 공공기록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기록을 수집하는 기존 로컬리티 기록화 사업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심층적 연구 결과물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수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서비스 중인 제주학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지역학 아카이브가 지역학 연구자들의 연구자원 허브이면서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역학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로컬리티, 로컬리티 기록화, 지역학 아카이브, 제주학 아카이브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의 기록물은 지역민들의 활동에 대한 증거, 기억, 정보와 지식이자 지역의 자산이다. 지역기록물은 지역 주민의 행동양식과 생활문화를 반

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기록물은 또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기도 한다. 지역기록물은 법적·행정적 증거로서의 기록을 넘어서서 사회적·문화적 기억으로서, 지역과 주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와 참여의 표상으로 기록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기록물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2006년 10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광역 시·도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이 설립되었으며 최근 대구, 경북, 전북, 경기 지역의 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기록 수집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록물관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도서관과 박물관에서도 로컬리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지역기록물 수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집을 위한 기록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지역학 연구센터에서도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축된 제주학아카이브를 비롯하여 공주학아카이브, 인천학아카이브, 강원학아카이브, 전북학아카이브 등이 최근 구축되었거나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학 아카이브는 지역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이미 수집되어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아카이브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기록에 대한 연구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지역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구성원과 정체성과 관련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컬리티 기반 아카이브는 지역 사회의 가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보존하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하

고 있는 일들까지도 기록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을 중심으로 고민되어 왔다. 즉,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결탁된 내용들을 민간 영역에서 기록을 찾아보고 수집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록화가 진행되었다. 지역과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공공기록의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 연구, 출판, 교육 산출물 혹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축적하여 현재 서비스 중인 제주학아카이브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과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한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로컬리티 기록화 사업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기록관이 공공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심층적 연구 결과물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수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제주학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지역학 아카이브, 무형유산 아카이브, 지역 문화자원 기록화, 아카이브 유관기관 국내외 사례 등과 관련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지역학 아카이브와 관련하여서는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나 연구센터에서 작성한 기본 또는 운영계획이 대부분이었으며¹⁾, 2018년 제주학정책세미나 발표자료집에 수록된 제주학아카이브와 관련한 현황 분

1)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2012;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2016; 강원학연구센터,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기초연구」, 2018;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동체 참여형 지역인문자원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 제주학아카이브를 중심으로」, 2018.

석 발표 자료가 있다.²⁾ 정책세미나에서 최효진(2018)은 제주학아카이브의 수집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아카이빙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수집전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주학아카이브가 제주 관련 연구 자료를 넘어서 제주라는 지역 전체를 아카이빙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학 디지털 아카이브가 분산 소장된 기록정보자원을 네트워킹하고, 제주라는 공간과 장소 중심의 기록화 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대상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공주학아카이브와 구축을 계획 중인 강원학아카이브나 부산학아카이브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학 아카이브 운영 사례에 대한 시사점은 잘 정리되어 있으나 각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학 아카이브를 고려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³⁾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기증자료의 저작권 쟁점, 이용자 연구 등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무형유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재청, 이치피디아, 국립무형유산원, 국악 아카이브와 같은 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인한 상호호환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슈 해결과 이용자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품질과 수집한 자료의 콘텐츠 품질, 수집 선정 기준의 명확화 등이 제안

2)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 지역학아카이브의 역할과 제주학아카이브의 미래」, 제주학정책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8.

3) 고순영,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2020, 115~121쪽; 이지은, 「부산학 아카이브의 구축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논문, 2017.

되었다.⁴⁾ 이용자 반응을 파악하여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아카이브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⁵⁾ 이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용자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제작이 가능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제주학 아카이브가 수집하는 제주 무형유산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아카이브 이용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리티에 대한 관심 속에서 로컬리티 기록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라질 것과 변화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한 연구가 초반에는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와 수집한 기록물을 어떻게 아카이브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빙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공동체, 특정 지역 등을 사례로 한 연구들로 다양해지고 있다.⁶⁾ 로컬리티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기록 보존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살펴보거나 지역주민 참여형 방식이나 네트워크 기반

4)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20호, 2016, 95~134쪽; 한희정, 김태영, 김용,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3호, 2016, 329~359쪽; 이철남,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증자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1호, 2014, 241~266쪽.

5) 김미숙, 정성환, 「무형문화유산 영상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수용자 반응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8호, 2012, 114~122쪽.

6) 손동유, 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호, 2013, 161~206쪽; 이경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호, 2015, 51~82쪽.

의 기록화 방식으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⁷⁾

앞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주학아카이브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라는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집단기억의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도민의 공동체의 경험을 재현해야 하며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이야기와 내러티브는 맥락을 보존하고 재맥락화하면서 수집해야 한다. 상호호환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제주학과 제주라는 지역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자원을 단순히 저장하는 아카이브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자원’의 생산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또한 수집하고 생산한 기록과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기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관리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제주학아카이브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주학아카이브의 운영조직, 제주학 관련 기록관리, 제주학아카이브 구성 및 서비스,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해서 먼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문헌조사를

7)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 연구』, 32호, 2012, 3~44쪽;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2호, 2012, 317~342쪽; 현문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2013, 127~150쪽.

실시하고, 지역학 아카이브, 로컬리티,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로컬리티 기반 아카이브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유관사례와 비교하여 제주학아카이브의 향후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데 반영하고자 한다.

2. 사례 분석

제주학아카이브의 운영 주체인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한 기록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사라져 가는 제주 문화와 관련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수집된 제주 관련 기록들을 디지털로 서비스 하고 있으나 디지털 아카이브가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디지털 도서관의 형태로 기록을 서비스하고 있어 제주학 자료에 익숙한 연구자들 외의 일반인들이 기록을 검색하고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학아카이브의 서비스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이용자군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제주학 자료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국내외 이용자들을 고려한 활용 프로그램 또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학 아카이브, 아카이브에서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한 서비스, 아카이브에서의 기록 활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 아카이브의 기록 수집과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공유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로컬리티 기록화를 모델링하는데 반영하고자 한다.

1) 로컬리티 기반 지역학 아카이브

현재 로컬리티 기반한 지역학 아카이브로 구축된 곳은 공주학아카이브와 제주학아카이브가 있으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나 추진단 운영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5월 공주대학교 내 공주학연구원이 개관하면서 공주학 관련 자료를 정리·연구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하거나 시민교육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2017년 공주학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다.⁸⁾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주학아카이브는 총 40,161건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형태분류, 출처분류, 시대분류, 주제분류로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공주학아카이브 기록물 분류 현황 (단위 : 건)

형태별	사진류	문서류	도서간행물류	시청각류	박물류	구술류
출처분류별	개인	기관	기업	단체	업체	미상
	8,981	27,486	110	2,827	2	5
시대분류별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	미상
	51	515	2,689	87	35,981	68
주제분류별	경제·산업	교육	문학·예술·언론	민간신앙과 민속	역사·유적·인물	읍면자료
	471	8,999	509	329	6,199	1,275
	정치·행정	종교·언어	지리·환경	지역개발·관광	참고자료1	총류
	3,853	293	1,216	12,314	2	3,352

형태분류별 기록물은 사진류, 문서류, 도서간행물류, 시청각류, 박물류, 구술류, 출처분류별 기록물은 개인, 기관, 기업, 단체, 업체, 미상, 시대분

8) <http://kjha.kongju.ac.kr/>

류별 기록물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 미상으로 각각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별 구분의 경우, ‘근대’에 속하는 기록물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경우가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주제분류별 기록물은 경제·산업, 교육, 문학·예술·언론, 민간신앙과 민속, 역사·유적·인물, 읍면자료, 정치·행정, 종교·언어, 지리·환경, 지역개발·관광, 참고자료, 총류로 총 12가지로 구성되었다.

공주학아카이브 컬렉션은 전체컬렉션, 주요컬렉션, 기증자컬렉션으로 구분되며 전체컬렉션은 공산성 컬렉션, 학교 컬렉션, 백제문화제 컬렉션, 새마을운동 컬렉션, 기증자컬렉션, 사진그림엽서 컬렉션, 시민기록활동 컬렉션, 제민천 컬렉션, 금강 컬렉션, 계룡산 컬렉션 총 10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공주중학교, 공주배다리, 새마을운동 등 전체컬렉션에서 주제별로 따로 주요컬렉션이 구성되어 있다. 주요컬렉션 대부분은 공주 지역 내 장소를 중심으로 한 사진기록물이며 기증자컬렉션은 기증한 개인기증자를 중심으로 컬렉션이 구성되었다.

〈그림 1〉 공주학아카이브



(좌) 공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 (우) 공주학아카이브 시민기록연구자 활동

공주학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구축 이전부터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구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공주 지역 민간 영역의 기록물을 주

로 수집하여 시민 대상의 자료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산성, 금강, 제민천 등 공주 지역의 주요 명소 위주의 기록 수집과 컬렉션 구성 외에도 ‘교육도시 공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한 학교컬렉션과 공주행정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마을운동 컬렉션 등이 특징이다.

또한 기록콘텐츠를 통해 VR이나 전자책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공주학연구원의 온라인소식지 발행과 신착기록물과 콘텐츠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주 지역 시민활동가를 양성하여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지역학 아카이브에서 보기 힘든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원 내에서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하여 전문가, 공무원,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현재 네이버 카페 ‘공주의 일상 기록하기’를 통해 시민활동가들의 공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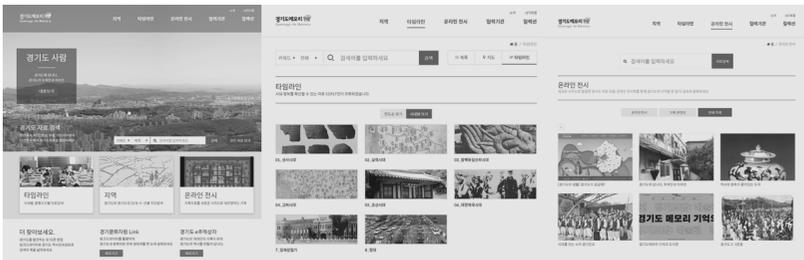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자원 수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기도메모리’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다.¹⁰⁾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보를 집대성하고 경기도민의 발자취와 활동을 기록화하여 경기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경기도메모리는 경기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되 도시 공

9) <https://cafe.naver.com/gongjuarchive>

10) <https://memory.library.kr/>

간 계획 관점에서 기록화하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커뮤니티와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화하고자 하였다. 수집영역, 수집유형, 주제별로 기록수집 매트릭스가 제공되어 기관과 조직, 정책과 사업, 사건별 기록물의 수집과 선별지침이 정리될 수 있었다. 수집과 관련하여 먼저 경기도 역사문화 관련 기록물 소장처를 대상으로 리드가 개발되었고 데이터 수집가능 기관을 우선 접촉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이 실행되었다. 수집된 기록물은 분야·영역, 주제, 종목, 지역, 시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다중분류체계에 따라 정리되었다.

〈그림 2〉 경기도메모리 온라인서비스



경기도메모리 온라인서비스는 타임라인을 통해 경기 천년역사의 변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자료 검색이 가능하며, 지도 뷰를 통해 경기도 지역 자료의 전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DB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도 경기도민이 기증한 자료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경기도 내 문화원, 도서관, 문화기관 등의 협력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록수집 네트워크’ 기반 수집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유하고 있는 자료의 수량을 통해 협력기관의 모든 기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유하고 있는 기록 선정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력기

관 소장기록에 대한 경기도메모리 수집 기준은 제주학아카이브에서 도내·외 협력기관과의 기록 공유를 위한 협력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반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 주관으로 강원학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서비스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9년 8월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센터를 설립하였다.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에 착수하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¹¹⁾ 강원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강원학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강원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학아카이브를 통해 강원 지역의 근현대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시민기록가 양성, 다양한 자료를 DB 구축으로 서비스하는 라키비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라북도 지역의 전북학연구센터는 과거 호남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전북 몫 찾기’와 함께 전북인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전북학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하였다. 전북학아카이브는 도내 박물관, 도서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 자료를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목표로 준비하여 2019년 전북연구원 내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었다. 전라북도와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학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북학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본방향과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다.¹²⁾ 2019년

11)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강원학아카이브 구축 기초연구」, 2018.

12) 전승완, 「전북학연구센터, 지역학 ‘아카이브’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2019.09.2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1481>

이후 ‘전북학이카이브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구축 사업에서도 ‘전북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전라북도 지역 내 유사기관과 전북학이카이브의 사업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복 기능과 업무에 대한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2) 다양한 이용자군 고려한 서비스 제공

〈그림 3〉 프랑스 서쪽나라 기억여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프랑스의 서쪽나라 기억여행¹³⁾은 프랑스 방송아카이브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와 브르타뉴(Bretagne), 페이드라르와르(Pays de la Loire) 등 프랑스 서부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기록물로 구성된 온라인 전시관이다. 프랑스 서부지역은 2차세계대전 종전을 기점으로 여러 차례 전후 재건과 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 환경이 변화하면서 항구와 포구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산과 단절되었다. 1990년대까지 농촌과 어촌 풍경이 일부 남아있는 자연 및 인문환경과 산업적 환경 변화와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

13) <https://fresques.ina.fr/ouest-en-memoire/>

변동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기록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촬영되거나 해당지역 기반 기업,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기록물을 활용하여 로컬리티 기반 사회적 기억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INA의 소장자료 중 프랑스 서부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자연, 언어,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된 영상기록물 600여 건이 온라인 전시관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연대기별, 지역별, 주제별 브라우징 가능하도록 편집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촬영되거나 지역 주민이 촬영한 시청각기록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영상유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홍보하거나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기록물에 녹취록을 함께 제공하여 오디오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촬영 및 방영 관련 맥락 정보를 기술하였다. 전문가 외에도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본검색창을 제공하되 개별기록물에 주제나 행정단위 지역명 등의 키워드를 부여하여 특정 키워드에 연계된 복수의 기록물을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기록물에 표현된 내용이 가리키는 시기별 콘텐츠 분포를 타임라인에 표현하여 특정 기록물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기록물을 열람하고 방영 및 촬영 날짜, 영상길이, 매체, 출처, 주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은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사회의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산업적 활용 기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¹⁴⁾ 2013년에 안동 지역의 역사 기록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2016년 사단법인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을 설립하였으며, 이 곳에서는 경북 시민아카이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안동 지역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안동댐 수몰 마을 생활사 아카이브 사진전, 정기소식지 『기록창고』 발간 등을 수행해왔다.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은 민간 영역에서의 기록물을 수집할 경우에는 디지털 사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 유형 중에서도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다. 안동 지역의 생활과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수집사업을 통해 입수하여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수집한 사진들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회나 달력 제작으로 안동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마을 이야기’를 기획하여 안동과 예천 지역의 근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스토리아카이브에서 기록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안동과 예천 지역의 근대시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작했던 안동 지역의 종교, 전통마을과 생활을 조사한 내용과 사진은 정리되어 책으로 출판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e-book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민과의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 및 서비스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저작권 관리를 통한 위협관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의 기록물 수집은 기증을 통해 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소유권 등의 저작권이 이전된다. 현재 아카이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무형유산 기록물의 저작권과 관한 문

14) <http://www.gacc.co.kr/coding/main.asp>

제이다. 무형유산의 전승자나 전승하는 공동체, 그룹, 개인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토착민과 공동체, 개별적인 그룹, 가족, 종족, 국가, 전통적 또는 문화적 공동체, 무형유산을 기록화 하는 주체(개인이나 기관)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무형유산 아카이빙을 통한 기록물은 대부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해결되어야 한다. 제주학아카이브에서 기수집한 기록물 뿐만 아니라 향후 수집하고 활용하게 될 기록물을 고려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쟁점을 해결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위험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카이브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민간기록물의 저작권은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¹⁵⁾ 대부분의 캐나다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증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원주민 기록을 중심으로 탈식민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호주 태즈메이니아는 기록물을 소유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보존소는 기증과 위탁 두 가지 수집방식을 활용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한다.¹⁶⁾ 위탁은 개인기록물과 가족기록물로 구분되어 기증절차와 유사하게 수집담당직원을 통해 위탁절차가 진행된다. 저작권 협의는 위탁동의양식을 작성하면서 진행되며 양식은 위탁자 성명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 기록물에 대한 기술, 출처 및 소장 이력, 접근, 저작권, 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동의양식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기증동의양식과 다른 점은 저작권의

15) 김지현,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2014, 105~126쪽.

16) <https://libraries.tas.gov.au/archive-heritage/Pages/default.aspx>

소유 여부와 권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위탁동의양식의 저작권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선택사항은 모든 위탁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이전, 위탁자가 저작권 소유, 저작권의 부분 이전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저작권 부분 이전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본 제작, 연구 목적의 사본 제작, 홍보 목적의 사본 제작, 필름이나 비디오의 대여를 위한 사본 제작 등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사례는 기록물 소유권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아카이브의 기록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를 웹기반 백과사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치피디아는 로그인을 한 회원이 기록물을 업로드 할 수 있다.¹⁷⁾ 이치피디아가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을 회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업로드 시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CCL)에 동의하도록 한다.¹⁸⁾ 이치피디아는 저작권자가 CCL에 동의하도록 함으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들은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게시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17) <http://www.ichpedia.org/>

18)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1.

〈그림 4〉 CCL 표시 조건 및 설명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건입니다.	CC BY
	저작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변경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국립국악원은 저작물 관리 규정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하고 있다.¹⁹⁾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연과 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확보한 계약서는 목록화, 디지털화, 분기별 확보 현황 공유, 아카이브시스템 내 ‘저작권 정보’ 메뉴를 통한 저작권 유무, 공개여부, 저작권 특이사항, 원본계약서 보관 파일철 번호 등을 기술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자료 유형별로 발생하는 저작권을 각각 기술하고 원본계약서를 통한 1차적 해석 내용을 토대로 ‘확보’와 ‘비확보’ 권한을 정리하여 공연과 아이템 단위의 저작권한 보유 여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4) 협력 및 공유 기반 기록 네트워크 운영

서울기록원은 2019년 5월 개관하여 서울시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과

19) 노예리, 「한국 전통음악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국악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9집, 2017, 43~82쪽.

관리 및 활용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서울시 내 문화기관을 비롯해 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아카이빙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서울기록원은 '서울 기록'을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으로 총칭하고 있으며 서울 기록은 당대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정의한다. 서울시 공공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이관대상 기록물이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며 개인, 기업, 시민단체 등이 생산한 시민기록인 편지나 일기,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또한 서울기록원이 원본이나 사본으로 수집하거나 기증 받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서울기록원의 기록수집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기록과 협치기록은 원본을 직접 수집하지 않고 디지털화하여 사본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기록과 관련한 맥락을 함께 수집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기록원에서 기록수집 방법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치기관, 개인, 시민단체의 기록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수집계획을 수립하였다. 협력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서울기록원으로 일방향적으로 이관하는 단계를 넘어서 각 기관의 활동과 업무속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해당 기관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서울기록원과 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서울기록화 수집실행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록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수집은 지양하고, 해당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기록정보자원의 공유에 초점을 둔 분산보존, 연계수집전략을 지향함
- 정부의 기능평가 체계를 참고하되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기반한 선별적 수집을 지향함

- 서울기록원의 지원정책으로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유기적인 협력 전략을 지향함
-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공유와 소통을 통한 수집을 실행함
- 기록정보자료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은 소유자 그대로 유지하되 활용권을 얻는 방식으로 생산자의 자율적 통제권을 보장함
(출처 :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2013)

서울기록원은 위의 수집 원칙을 통해 서울시 소속부서 외에도 서울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영역과의 연계를 전담하는 협치기관, 민간영역에서 생산하고 소장한 기록물을 공유하고 향후 생산된 기록물을 유기적으로 서울기록원 수집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활용하고자 하였다.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로 약칭)은 미국의 국가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32개의 서비스 허브와 14개의 콘텐츠 허브로 구성된 허브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허브는 주 또는 지역 내 파트너, 라이브러리, 박물관, 아카이브 및 문화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내 다양한 기관들이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아카이브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구축된 콘텐츠 허브는 디지털 텍스트, 사진, 매뉴스크립트, 예술 작품, 기타자료 등의 수백만 건의 기록을 수집하여 API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DPLA는 허브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공유문화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대중의 검색가능성과 접근성, 그리고 가용성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컬렉션의 교육적 이용, 이용을 위한 권리에 대한 대응, 다양한 기관들에서

사용가능한 차세대 보존솔루션 개발, 소외된 사람들이 생산한 기록에 대한 추적과 탐색, 조사를 통하여 기록생산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키비스트, 사서,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클라우드소싱을 통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 of California, OAC로 약칭)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서관, 특별 컬렉션, 아카이브, 역사 관련 기관, 박물관 또는 다른 문화기관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OAC는 캘리포니아 내 문화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관의 기술력이나 조직규모, 비전자기록물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협력하였으며 기록, 매뉴스크립트, 유물, 데이터세트, 기타 주요자원을 협력 주제로 하였다. 지역내 문화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관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 검색엔진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통해 기관의 컬렉션이 보다 더 쉽게 검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하여 이용자는 더 큰 집합적 맥락 속에서 컬렉션을 볼 수 있었으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구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디지털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역학 아카이브, 로컬리티 기록화, 무형유산 아카이브 등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제주학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무엇보다도 제주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주 도내 커뮤니티와 도민들의 일상 기록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록화는 제주학아카이브 혼자만이 할 수 없으며 도내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 도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장하여 제주와 제주학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대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주 지역

의 변화에 따른 제주 도민들의 삶의 변화 또한 기록으로 수집하고 생산하여 제주학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은 반드시 맥락 정보와 함께 수집하고 생산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에 대한 저작권한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1) 분석 범위 및 방법

제주학아카이브 개선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기에 앞서 현재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약칭)가 운영하는 지역학 원천자료 컬렉션이자,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전하고 대내외로 홍보하는 기능을 지닌 시스템’이다.²⁰⁾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으로 시작된 제주학아카이브는, 2012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5만여 건의 자료가 수집된 상태로, 수집된 자료는 대부분 대내·외로 원문공개하여 연구나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아카이브의 수집, 관리,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학아카이브가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콘텐츠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학 아카이브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20) 좌혜경,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계획」, 『춘천학연구』 창간호, 2019, 61~83쪽.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학아카이브를 마케팅 분야의 3C분석을 이용하여 검토할 것이다. 3C 분석은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세분화를 통해 표적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자사(Company), 고객(Customer), 경쟁사(Competitor)의 요소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²¹⁾ 아카이브에 3C분석을 적용하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층, 그리고 해당 아카이브와 경쟁하게 될 유관기관 분석하여 개선 과제 및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학아카이브의 운영기관인 연구센터의 추진사업과 기능, 제주학아카이브의 기수집 컬렉션, 제주학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층을 분석할 것이다. 다만 경쟁사(Competitor)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 2장에서 사례분석으로 다루므로 본 장에서는 제주학아카이브 내부환경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 아카이브 내부 환경분석

제주학아카이브의 내부 환경분석에서는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연구센터의 주요 기능과 추진 사업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센터의 추진 사업과 제주학아카이브의 수집, 관리, 활용 기능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 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센터는 2011년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자리 잡아 제주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학은 선사 이래 탐라 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

21) 히라노 아쓰시 칼, 『칼 교수의 마케팅 집중강의』, 북랩, 2019, 58~59쪽.

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즉, 제주의 역사 및 제주어와 유·무형의 제주문화를 총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역학 진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²²⁾를 마련하였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위탁계약 체결과, 2013년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연구센터의 운영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출연금으로, 2015년도 4억 원에서 매년 조금씩 출연금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를 포함한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학아카이브 운영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2억여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연구센터는 제주학 진흥을 위한 자체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사료 수집, 해제, 편찬 작업, 제주학 도민교육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 및 번역서 출판사업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제주학 연구·교육·출판 등을 위한 연구자료 및 정보를 공공서비스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센터는 개원 초기부터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DB화 그리고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홍보에 관심을 두었다. 연구센터의 역할을 학문적 자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연구 수행 이후에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지식 자원화에 힘쓰면서 수요자 중심의 자료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학아카이브 운영에 주목해야 할 특징 중 하나는 연구지원사업, 학술교류사업, 교육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22) 조례 제1020호, 2013.03.20. 변경 2016.11.23.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단행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원천자료 등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연구센터에서 사업 단위로 여러 주체가 생산한 기록물을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업의 최종 산출물인 연구보고서 혹은 단행본의 pdf파일 외에는 제주학아카이브에 입수되는 연구수행 과정 자료는 체계적으로 이관되고 있지 않다. 현재는 각 사업에 대한 산출물(예 : 연구 최종보고서)만 수집하여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자가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사업 주체가 생산하는 원천자료의 수집 필요성과 제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타 사업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원천자료를 사업종료 후 사업 참여자가 시스템에 직접 등록함으로써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센터의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연구진과 연구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아카이브 컬렉션 수집을 위해 연구진으로부터 연구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 수집사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제주학대회와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제주학 관련 세미나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세미나자료집과 결과보고서 등이 생산된다. 이는 이후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으로 입수되는 업무산출물로, 행사 진행 기간 동안 촬영되는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이관된다. 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가 제주학아카이브의 컬렉션으로 입수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의 사진, 영상과 함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자료집과 결과보고서 등과 연계되는 열람서비스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미나/학술대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진, 영상 촬영 주체를 지정하

고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공하는 ‘시청각기록물 생산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촬영방법 등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 기관 및 단체가 세미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세미나 개최 및 세미나지원 사업 관련 자료집, 결과보고서, 사진/영상 등을 사업 종료 이후 제출 대상 산출물로 지정하고, 이를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에 직접 등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센터는 센터장 이하 5개 팀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학아카이브 관리는 ‘아카이브관리팀’이 수행하고 있다. 제주학아카이브 운영인력 정원은 아카이브 관장 외 도서관리, 연구분석, 수집등록, 전시홍보 등 5인을 정원 인력으로 두고 있지만 현재는 2인이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아카이브관리팀은 제주학 기초자료, 연구 성과, 문화자원 DB화,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 민속, 구술, 영상·사진, 해외자료 DB화,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전체 51,828건(2020.01.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까지 연구센터에서 수집하여 시스템에 공개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자료로서, 물리적 차원의 자료관리 인력, 연구보고서나 출판물 등 도서 형태의 관리를 위한 사서인력, 수집된 자료에 대한 DB화,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앞서 연구센터 업무 산출물이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에 이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센터의 조직에는 전체 업무 산출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나 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체계적인 제주학연구자원 수집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관련 기록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을 지향하는 제주학아카이브는 중장기적으로 수집 자료의 물리적 관리를 위한 수장고와 보존장비 및 열람공간 마련 등의 과

제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학아카이브 소장자료 공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자들에게 물리적 차원의 소장자료 방문 열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학 연구 결과물을 수집한 컬렉션이라는 특성상 수집자료가 연구보고서, 자료집, 해제집, 목록집 등 책자 형태가 많으며, 오프라인 형태의 열람공간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서비스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수집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 매년 입수되는 연구보고서와 총서 등을 보관하기 위한 도서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리·기술·보존처리 등을 하기 위한 업무공간 등도 부족하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록이나 향후 생산될 기록이나 수집 기록물을 배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집할 자료의 멸실 및 훼손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조직·공간·장비 구성안 도출이 필요하다.

3) 컬렉션 분석

연구센터는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 유형별로 동영상, 구술자료, 연구물(제주학DB)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2013년을 전후하여 수집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월 현재 수집된 자료는 문헌, 사진, 동영상, 음성자료 등 5만 1천여 점으로 이 중 37%가 제주 역사와 관련한 고문헌 자료이고, 사진이 25%정도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수집된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맞춰서 제주학아카이브에 수집되는 자료를 학문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관리한다. 학문 분야별 자료는 역사(54.7%)와 사회과학(22.5%), 순수과학(7%), 종교(5%) 순이다.

〈표 2〉 제주학아카이브 유형별 자료

구분	수량(단위: 건)	자료 구성 ²³⁾
제주학DB	10,838	제주학 연구자료 보고서 및 총서 원문 타 출처(제주대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사본 원문 및 링크
고문헌	225	탐라순력도, 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등
해외문헌	8	해외 소재 제주학 관련 자료 (하와이 대학교 해밀턴 도서관, 외국인 및 해외 교민 개인 소장)
고지도	8	제주삼읍전도, 동여도 전도, 대동여지도 전도,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광여도, 조선강역총도, 해동지도, 제주군읍지
사진	13,201	버섯(200), 야생화(166), 노루(31), 곤충(163), 새(114), 목축(128), 포구(268), 해녀(1,480), (무속2,753), 오름(152), 지역사회(3,476), 원담(87), 성읍(368), 문화재(1,552), 역사기사(1,167), 해녀음식 (639), 민속(457)
동영상	1,612	한라산(3), 자연유산(4), 제주인(30), 해녀(65), 문화상징(103), 대한뉴스(141), 민요(159), 제주어(228), 무속(591), 제주사(73), 기타(187)
구술(음성)	1,335	구비전승(57), 민요(1,060), 생애사(59), 제주어(66), 기타(69)
신문기사	5,118	제민일보(215), 한라일보(593), 제주신보(424), 역사신문(3002), 제주대신문(884)
제주역사	19,483	신증동국여지승람(3), 고려사(258), 조선왕조실록(1,753), 비변사등록(279), 승정원일기(16,123), 일성록(1,067)
합계	51,828	

출처 : 좌혜경,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계획」, 『춘천학연구』 창간호, 2019, 61-83쪽.

내용 면에서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을 분석해보면, 지역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고문헌과 사진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문 분야별 분포에서 역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수집방법으로는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국·공립 기관에서 DB화를 추진한 사료들 가운데 제주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대목을 선별하고 해당 부분을 사본으

23) 숫자는 수량을 의미함.

로 수집하거나 관련 링크를 제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에 공유한다. 이처럼 지역학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서 디지털화 및 DB화된 기존 유관 아카이브에서 지역학과 관련된 기록물을 선별하여, 해당 기관의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 수집을 실행하고, 이를 서비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내부 환경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제주어·제주민속문화·역사편찬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했거나 사업 결과 생산된 산출물이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제주학아카이브 소장자료의 주요 특징이다. 연구센터 내부 조직에서는 별도의 기록관리 조직 혹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카이브관리팀은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사연구, 출판, 교육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부서의 연구결과물을 컬렉션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주제별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형태로 수집 컬렉션이 구성되며,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정책에 따라 대부분 연구자원은 최종산출물이 pdf형태로 제주학아카이브에 원문공개된다. 2019년도 12월 기준 사업별 운영계획이나 자체 출판, 교육사업 등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 제주학아카이브 자료 수집 결과 수집된 수집기록 해제집, 목록집 등은 110건 정도이다.

한편 연구센터의 역사편찬 사업으로 제주의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구술채록사업 및 기록화 사업 등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 언어, 고연령대 제주도민들의 생업이나 기억, 제주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음성자료와 동영상 등이 연구센터에 의해 자체 생산되었다. 연구센터는 제주학아카이브 출범 이후부터 주로 지역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수집 체계를 유지해왔다. 제주학아카이브로 구축된 자료에서 단일 유형의 콘텐츠 중 무형유산 자료들이 건수가 많은 편으로, 전체 자료의 15%를 차지한다.²⁴⁾ 해녀, 무속, 민요 등 제주 무형유산이 대

부분인 이유는 연구센터를 비롯해 제주학 연구자들이 무형유산이 가장 시급히 소멸되어 구술 채록 혹은 현장 실지조사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연구 수행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12월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난 후 해녀에 대한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표 3〉 제주학아카이브 지역 무형문화유산 자료 구성

구분	수량 (단위: 건)	자료 구성 ²⁵⁾			
		연구물DB	동영상	사진	구술자료
제주민요	1,301	71	159	11	1,060
제주전설	371	88	55	204	24
제주신화(본풀이)	368	277	75	0	16
제주무속	3,415	146	515	2,752	2
제주해녀	2,632	252	68	2,191	121
관모공예	40	0	10	5	25
합계	8,127	834	882	5,163	1,248

이와 같은 수집 과정에서 제주학아카이브는 구술채록사업,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음성 및 동영상 자료를 생산하기도 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단행본 형태의 기록집, 해제집, 사전 형태로 생산함으로써 연구센터의 역사편찬사업과 아카이브의 수집사업을 연계해왔다. 또한, 지역 신문사 및 방송사와 업무협약에 따라 이를 주제로 한 사진 및 영상 자료 디지털 사본을 이관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주학아카이브 수집된 제주 민요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서 콘텐츠화하였으며, 제주 민요 연구자인 나요당 이소라 선생 기증 구술자료(1984~1998년 생산자료)를 엮어

24) 좌혜경,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계획」, 『춘천학연구』 창간호, 2019, 61~89쪽.

25) 숫자는 수량을 의미함.

서 『제주민요사전』(2015)이나 나요당 기증-제주민요자료집(2018) 등을 발간하였고, 음원을 보정하기도 하였다. 물론 지역 무형유산 자료 수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사본 이관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센터는 아카이브 수집활동에 있어서 시의성이나 적시성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2017년 ‘해녀’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제주 해녀에 관한 시의성 있는 수집 및 관리활동을 수행해왔다. 제주학아카이브의 해녀 관련 자료들은 동영상, 사진(사진집 포함), 관련 도서 형태로 수집되어 있다. KBS, MBC, JIBS 등 지역 방송국이 소장한 동영상 자료와 사진자료로 평생 제주해녀의 삶을 찍어왔던 사진작가 서재철 선생의 사진 등을 기증받아 ‘제주해녀 컬렉션’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학아카이브 외에도 제주해녀에 대한 자료는 제주해녀박물관이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해녀박물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박물관의 제주해녀 관련자료를 제주학아카이브에도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컬렉션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주학아카이브의 성과는 우선 제주 로컬리티 기록화의 수집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제주학 연구자 기증 중심 수집활동을 지속화했다는 점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구센터는 도 내·외에 산재해있는 제주 관련 중요 자료의 체계적 자료수집 기반을 마련하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주학아카이브 자료 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로부터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또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특히 제주학회, 한라도서관 등 제주 지역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 수집활동을 진행해왔다. 즉, 업무협약 대상 기관이 소장한 기록물의 디지털 사본을 이관받거나, 상대 기관이 소

장한 기록물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출판물 제작이 현재까지 연구센터가 네트워크 기반 제주학아카이브 수집 기능 수행의 주요 유형이다. 한편, 전북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등 지역학 연구기관과 연대하여 지역학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방법론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제주학아카이브는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 계획을 웹사이트에서 공고하고 자료를 기증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학 개인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하며 생산·보관해온 자료들을 제주학아카이브 주요 컬렉션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기증 중심 수집활동을 지속해왔다. 주요 수집대상으로는 제주 관련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진, 고문헌, 고문서, 지역인물 관련자료 등이다. 기증 신청이 들어오면, 제주학 자료수집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결정에 따라 수집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기증자와 제주학연구센터 사이의 기증협약서 체결하여 수집활동이 전개된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디지털(화)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증자로부터 원본을 대여하여 디지털화 하거나 디지털자료의 사본을 복사한 후 대여한 원본은 반환한다. 기증자 의사에 따라 디지털형태의 소장자료를 제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오픈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다. 연구센터는 제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기증안내문을 상시 공지하고 및 온라인 기증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때, 기증 신청자 정보, 자료 소장자 정보, 기록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다.

이처럼 제주학아카이브는 자료 수집 및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컬렉션 강화 정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제주학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수집기반을 강화하였고, 제주학 연구자들의 소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의 제주학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연구센터의 제주학 수집,

관리, 활용 기능 및 제주학아카이브 브랜드가치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존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그리고 구글,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은 보다 대중적인 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도 내·외에 산재해있는 제주학자료 잠재소장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기관, 단체, 개인들이 소장하고 생산하는 자료를 제주학아카이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탐라기록관리소 등 유사한 성격의 아카이브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제주학 오픈 컬렉션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학’이라는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하는 다양한 자료의 허브 기능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은 도 내·외에 산재해있는 제주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집대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컬렉션 강화와 관련된 과제에서 예산 부족뿐만 아니라 일관된 수집정책이 부재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제주학 연구자원의 허브로서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특히 제주학 연구자들의 연구·교육에 유의미한 활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집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도 몇 가지 이슈들이 분석된다. 이는 역사편찬, 제주어연구, 제주역사·문화연구 등 연구센터의 업무산출물의 아카이브 이관 차원의 문제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기술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연구센터의 생산기록 이관 차원에서 보면, 연구센터에서 기록관리 조직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사업이 끝난 후 해당 사업

과 관련한 업무산출물의 목록과 이를 아카이브 컬렉션에 수집하는 작업이 절차화 되어있지 않다. 사업에 따라서는 담당자의 PC, 노트북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치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다. 최종산출물은 제주학아카이브에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내부이용자 외에 별도의 기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 및 출판공모사업을 통해 연구센터의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게 제공되는 기록화 지침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록이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컬렉션에 수집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학아카이브의 현행 분류방식 및 자료 기술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분야별정보'는 한국십진분류법을 차용하였으며, '유형별정보'는 문헌·사진·영상·음성 등 자료의 형태가 대분류이면서, 하위에는 주제나 출처명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의 분류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특히 유형별정보 아래 주제명과 출처명이 혼재되어 있고, 일반명사와 고유명사가 혼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자료 제공방식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자료 검색을 위해 브라우징 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예를 들어, '제주해녀'와 관련한 자료의 경우, 분야별정보에서 제시된 '역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회과학'이나 '기술과학' 등 다른 대분류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중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이용자 분석

제주학아카이브의 이용자는 크게 연구센터 내·외부 업무이용자, 제주학 연구자, 제주학 연구를 수행하며 제주학아카이브 수집 활동에 잠재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잠재 이용자,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과 지역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지역주민, 관광객이나 이주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지역 외 일반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 구분은 연구센터 업무담당자들의 경험에 의한 주요 이용자군 파악이고, 명확한 이용자 분석 근거는 제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 방문자 통계 외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방문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온라인서비스 시작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조회수와 페이지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서 분석한 컬렉션 강화를 위한 과제에서 보다 일관된 수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역학 아카이브 이용률 감소 원인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수집 정책이 부재한 만큼,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화 비율도 낮은 편으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서비스 또한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자료 분류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학 고문헌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진자료 검색 등이 비교적 많은 수요를 보인다.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 역사학, 순수과학 분야의 연구자원 등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용현황에 따라 제주학 연구자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문헌, 사진자료, 구술(음성)자료, 신문기사 등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의 원천자료의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발굴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원문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과 관련하여 제주학아카이브는 다양한 이용자의 콘텐츠 수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연구센터 내부이용자와 연구센터의 연구·출판·교육 사업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업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로컬리티 기록화 차원에서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도기록관, 국립제주박물관, 한라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 문화자원과 차별화되는 제주도와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분야 학술활동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 수요를 갖는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출처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혹은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 장비, 시스템 등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수집자료에 대한 적절한 분류 체계와 통합메타데이터 표준 또한 필요하다. 즉,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되, 제주학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이용률 및 이용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학아카이브의 이용자 수요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제주학아카이브 이용자 그룹별 서비스 요구사항

이용자 그룹	설명
실무자	내부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연구센터 내부 직원 • 사업 및 업무진행을 위한 자료이용 • 업무담당자 외에도 유관 업무담당자가 소장한 전자기록(파일) 검색 •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습득
	외부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연구센터의 공모사업(연구지원, 세미나 지원, 총서 저술 및 번역 지원 등)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단체 • 사업 참여를 위한 이전 공모 선정 사업 검색
	네트워크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연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한 국내의 기관 • 연구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력은 없지만, 향후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관기관 • 제주도기록관, 제주시기록관, 서귀포시기록관, 국립제주박물관, 한라도서관 등지역 문화자원의 협력적 수집을 위한 정보습득 • 자료의 재가증, 위탁, 수집 협력, 운영 등 지원 •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한 기록의 생산·수집 및 관리

지역문화자원 기록소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증자 관리 현황의 제공 및 관련 서류 제공 •기증 기록물에 대한 원본 열람서비스 제공 •직접 방문 혹은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열람제공 •교육, 전시,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안내문 및 초청장 발송 	
연구자	직업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평가, 학계연구자, 학예연구사 등 •연구자 등록을 통한 비공개 자료 열람 서비스 제공 •인용정보 제공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제공 •다국어 메타데이터의 제공
	학업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제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공생 •논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지원 제공 •연구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한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교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상영, 체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원문자료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기 세미나 운영 •소장자료를 활용한 교과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도내 중등·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사(자유학교, 방과후학교, 창의파트너십 강사,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 학교밖 취약계층 지도강사, 문화예술코디네이터) •평생교육 관련 직종 (평생학습코디네이터, 행복학습매니저) •청소년 문화예술 지도자 	
창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학, 영화, 연극,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 수행자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자료 검색을 통한 지역의 역사문화 이해 •연령별, 학년별, 직업별 다양한 이용자 세분화 가능 	

5) 아카이브시스템 분석

제주학아카이브는 현재 온라인서비스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은 현재 부산의 IDC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학연구소에 오프라인 아카이브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앞서 이용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 구술자료, 동영상 등의 콘텐츠 수요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청각 자원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영상 버퍼링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학아카이브의 비전과 장기목표에 따라 제주학 연구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차원의 자료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이용률이 높아질 상황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 즉, ‘이중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서비스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에는 공유 기능이 없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할 경우 모든 서비스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은 웹 서버, 스트리밍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단 하나의 시스템에 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에 서비스에서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스토리지는 DAS(Direct Attached Storage)라는 형식으로 IBM StoreWize V370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DAS는 하나의 서버에서 접근할 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타 시스템과 공유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서비스가 중지될 수밖에 없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높은 부하가 생길 때에 전체 성능 저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 시스템은 100Mbps 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써 이용자들이 많아질 경우, 모든 성능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흔히 100Mbps 급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형 인터넷 서비스와 동일한 성능으로, 향후 보다 많은 영상자원 스트리밍할 때 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 5〉 현행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구성

	대수	형식	제조사 및 특징
Web 서버	1	Intel 계열 서버	IBM
Streaming 서버	1	Intel 계열 서버	IBM
데이터베이스 서버	1	Oracle	IBM
스토리지	1	Fibre Channel	IBM(V3700), Usable 20TB
방화벽	1		Web 방화벽
네트워크 스위치	1	L2/100Mbps	

한편, 현재의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은 고용량 데이터 보관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5TB의 공간을 스트리밍 서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급 화질 200시간 분량의 공간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서비스용 영상으로 변경하여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인터넷 기반 시스템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을 원본 그대로 저장하거나 서비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해상도 사진, 영상을 활용한 연구, 창작, 교육 등의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 안정성 차원에서도 서버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토리지 문제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다시 제주학 아카이브 연구실로 가져오거나 할 때 네트워크 등의 성능에 따라 연구센터에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를 제주학아카이브의 자산으로서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센터에는 수집된 기록물, 특히 현장에서 생산하는 구술채록 및 동영상 기록의 오프라인 보존 전략이 부재하다. 최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와 같은 장비들은 GPS, 시간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향후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에서 보관하기 위해 저장하는 JPEG 데이터에는 변환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소실된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장기적

으로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 구성에서는 원본 데이터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화질·고해상도 원본 데이터를 열람하고 제주학아카이브 센터에 실제로 방문하여 연구자나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콘텐츠 수요 등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학아카이브는 향후 시스템 구성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아카이브 시스템은 연구센터에 서버실을 구축하고 서버와 스토리지를 보강하여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클라우드 중심으로 개편하면, 연간 2억에 가까운 현재의 운영예산을 월 2~30만원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영상들은 전부 유튜브로 이전하여 서비스 하고, 이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비용의 절감과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들에서 유튜브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하여 홍보 기능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하면 스트리밍 서버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구글 및 유튜브 검색 엔진 및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제주학아카이브 조회수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학아카이브 별도 채널의 구독자 증가 및 기업 계정 유지에 따른 광고비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주학아카이브의 온라인 시스템은 현재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되, 원본 저장 기능은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수행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용으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활용 중심 제주학아카이브 체계 개선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학아카이브 내부환경, 컬렉션, 이용자, 시스템 현황을 토대로, 활용을 위한 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델링이므로, 지역학 아카이브에서 현재 개선해야 할 아카이브 기능 중 하나인 '서비스', 즉 수집된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제주학아카이브가 제주 지역의 인문자원 수집, 관리, 활용의 허브로서 제주도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제주학아카이브 운영방안, 현행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 개선 방향, 다양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집된 자원의 저작권 관리 등으로 살펴보겠다.

1) 네트워크 기반 제주학아카이브 운영

제주학아카이브는 지금까지 5만여 점 이상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제주학 연구와 관련된 자원을 수집해왔다. 자료 수집은 주로 연구센터 내부에서 자체 연구, 역사편찬 및 제주어 연구, 구술채록사업 수행 등을 통해 수집하였거나 연구·출판·세미나 지원 공모 사업 등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들이 수행한 산출물을 이관 받는 방식으로 수집활동이 이루어졌다. 제주학아카이브가 제주라는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를 지향한다면 현행 연구센터 중심 컬렉션 수집활동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제주학 연구는 물론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도민의 기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수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즉, 제주학아카이브는 도 내·외 산재한 중요자료를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기관과의 기증, 이관, 자료공유의 방법과 법적 절차 및 권한 확보 등에 대한 방침 등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 형태로 수집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기반 수집사업 운영에서는 ‘자료 공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 공유는 제주학아카이브가 자료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지만 소장기관의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온라인 환경에서 웹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웹 정보자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타 기관 링크 수집을 하는 경우, 제주학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유관기관의 이용자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자료의 교환과 기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록 생산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약을 통해 생산 시점부터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자료 기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센터와 같이 지역 인문자원을 수집하는 허브 기관에서는 지역 기록물 수집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지역 인문자원 수집·발굴 공모사업(가칭)’ 등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연구센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년 수행하는 기록물 기증공모와는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 지역 인문자원 수집네트워크(가칭)’가 구성되고 향후 활용 방안도 회원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유관기관과의 수집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기록물이 제주학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에서 통합서비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 연구나 교육자료로의 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오픈 서비스 운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제주학아카이브와 수집네트워크에 기증하는 기증자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마련하고, 기증자 컬렉션을 별도로 전시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하는 별도의 공간,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기증컬렉션 전시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에 이관된 수집자원을 포함한 연계기관의 다양한 웹 정보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신중하고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작권, 계약 등의 법적 절차와 기관간의 갈등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전문 자문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단체·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사업 방안을 도출하며, 도청·시청 등 공공기관과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학아카이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현재 연구센터가 다양한 기관들과 수립한 업무협약 등을 중심으로 도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기관, 제주학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들과 자원 수집, 관리, 활용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대상 네트워크와 일반인 대상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문가 대상 네트워크는 제주학 연구와 관련된 자원 수집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지식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재 연구센터가 아카이브 수집 외에도 여러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주학연구자네트워크 등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인 대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나이·성별·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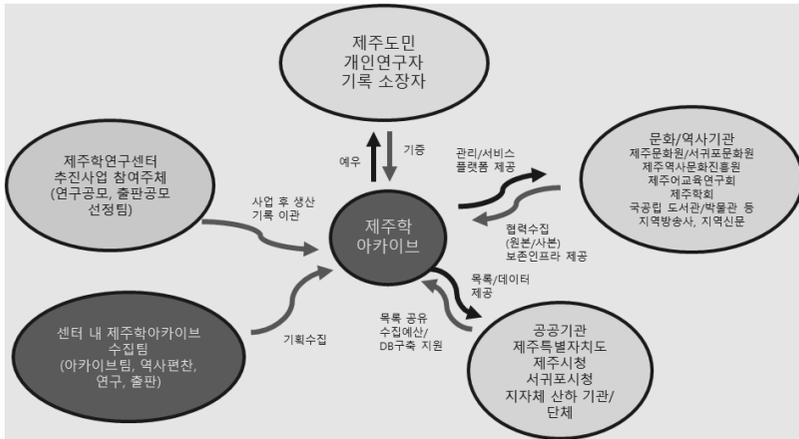
들 대상으로 교류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현재 도 산하 연구기관으로, 공공 부문에서 운영되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관련 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언론사, 방송사 등 문화·역사기관의 다양한 소장품이나 전시·교육·활용 중 제주학아카이브 수집 목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조사·파악하여 이들을 수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및 그 산하기관과의 협력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 사회, 문화, 역사분야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및 사업의 결과물들은 제주도 문화자원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기록관 등을 중심으로 자체 아카이브 구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앞서 도 산하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시재생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등과의 협력은 현재의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 강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센터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마을, 교육 등의 공동체와의 협력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센터는 마을미디어 단체인 '소도리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보다 다양한 도민들의 기억을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들의 활동은 그 자체가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사회문화의 한 축을 구성하므로 중요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들은 대부분 아카이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도구나 방법의 부재로 아카이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주학아카이브의 주요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제주 지역 인문자원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운영할 수 있다.

〈그림 5〉 제주학아카이브 수집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2)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

활용 중심 제주학아카이브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현재 제주학아카이브는 ‘분야별정보’와 ‘유형별정보’로 구분하여 수집된 5만 여 건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분야별정보는 한국십진분류법에서 차용하여 제주학의 여러 학문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유형별정보는 문헌·사진·영상·음성 등 자료의 형태로 대분류하고, 하위에는 주제나 출처명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6〉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 분류체계

분류	건	비율	분류	건	비율
총류	217	0.46%	보고서	1047	2.22%
철학	8	0.02%	논문	3664	7.78%
종교	3302	7.01%	단행본	380	0.81%
사회과학	10583	22.47%	정기간행물	436	0.93%
순수과학	2571	5.46%	세미나	193	0.41%
기술과학	1567	3.33%	고문헌	19635	41.68%
예술	1401	2.97%	고지도	12	0.03%
언어	547	1.16%	사진	13330	28.3%
문학	1128	2.39%	동영상	1608	3.41%
역사	25782	54.73%	구술(음성)	1332	2.83%
			신문기사	5118	10.86%
			기타	351	0.75%

(좌)분야별정보 (우)유형별정보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분류체계 적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주 지역 인문자원은 유형상 사진과 구술자료의 수집량이 비교적 많으며, 내용 면에서는 지역정보, 인물정보가 많은 편이다. 향후 제주학아카이브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류의 다양한 접점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기반 아카이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제주학아카이브가 단순히 문화자원을 통합 수집,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집, 관리, 활용 네트워크 운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학아카이브는 주제별 분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자원을 분류할 수 있는 다중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한 개인 기증자의 자원을 찾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음원과 이미지, 그가 활동했던 이력과 관련된 문건과 이미지 자원, 그가 기증한 문화자원 등의 모든 자원에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 많은 기관들이 로컬리티 기록화를 고려하여 여러 방식의 분류체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례 기관들의 분류체계를 유형화해보면, 수집된 자원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유형별 분류, 수집된 자원을 생산시기 혹은 관련된 연대기별로 분류하는 타임라인 기반 분류, 해당 지역의 세부 행정구역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지도 기반 분류, 그리고 기록물을 이관 혹은 기증한 기관을 중심으로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출처별 분류,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혹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특징 등을 기초로 한 주제별 분류 등이 일반적인 분류체계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7〉 유관 사례 아카이브 분류체계 구분

구분	사례 연구 기관
타임라인 분류	공주학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 프랑스 서쪽나라 기억여행
지도기반 분류	경기도 메모리, 프랑스 서쪽나라 기억여행, 미국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출처별 분류	공주학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미국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주제별 분류	공주학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 프랑스 서쪽나라 기억여행,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미국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유형별 분류	공주학아카이브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학아카이브 또한 국내외 문화자원 서비스 분류체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분야별 정보’를 활용한 학문 영역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되, 크게 지역, 시

대, 기록유형 주제, 영역의 카테고리 안에 세분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학 아카이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지명이나 공간 이름을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내·외부 이용자가 연구센터의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학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의 추진사업별 분류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 8〉 제주학아카이브 분류체계(안) 예시

구분	세부 영역	하위 분류
분야·영역	총류	세부 영역별 하위분류 개발 필요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주제	문화자원	사적/ 명승/ 고고유물/ 기록유산/ 건축물/ 불교회화/ 일반회화 / 불교공예/ 일반공예/ 조각/ 공예기술/ 전통연행/ 천연기념물 / 문화재보존기술
	지방역사	시군지/ 향토지/ 지명유래
	정치와행정	지방정치/ 지방행정/ 사법과치안/ 지역사회운동
	종교와문화	종교/ 학문교육/ 문화예술/ 언론/ 체육
	일상생활	성씨/ 인물/ 전설민담/ 설화/ 생활
기록유형	문서류	일반문서/ 편지·엽서/ 일기/ 일지·대장/ 증서·카드/ 팸플릿·브로셔/ 유인물/ 공문
	도서간행물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임시간행물/ 임의제본물
	사진그림류	포스터/ 도면/ 회화/ 판화/ 대자보/ 사진/ 필름/ 슬라이드필름/ 단체앨범
	영상음성류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CD타이틀/ DVD타이틀/ 방송물/ 음원/ 동영상
	특수전자기록류	웹페이지/ 이메일/SNS/데이터세트
	박물류	기념품류/ 상훈장류/ 의복잡화류/ 기기기구류/ 예술품류

지역	제주도	
	제주시	4읍·3면·19동
	서귀포시	3읍·2면·12동
시대	선사시대	시기구분
	삼국시대	시기구분
	발해통일신라시대	시기구분
	고려시대	시기구분
	조선시대	시기구분
	대한제국시대	시기구분
	일제강점기	시기구분
	현대	시기구분 (1950년대, 1960년대… 등)
	업무기능	자체연구
연구지원(공모)		
출판/번역		
학술대회/세미나		
역사편찬		
	제주어연구	

활용 중심의 제주학아카이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메타데이터 항목의 검토와 개선도 함께 요구된다. 현재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는 제주학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항목에는 ‘유형별정보’라는 대분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타데이터 항목들은 유형별 특징을 담고 있지 않다. 현행 제주학아카이브 메타데이터는 유형을 불문하고 형태, 학문분야, 생산연도, 저자명, 소장처, 조회수, 첨부파일(디지털객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정보로 기록물의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사진기록물의 경우 기록물별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사진에 노출된 인물 및 장소정보, 출처정보, 해당 사진에 대한 키워드나 태그 입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학아카이브에는 제주 각 지역의 민속문화 혹은 제주어 등과 관련한 구술채록사업 결과물이 컬렉션으로 입수되어 있는데, 이를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유형별정보의 ‘구술(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술’을 포

괄하는 ‘음성자료’로 분류명을 변경하고 하위로 민요/구술채록/제주어 등으로 구분하며 ‘구술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적 요소가 있는 콘텐츠인 민요나 생애사 구술채록인 경우에는 가사나 녹취록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 출신이 아닌 이용자들은 제주어를 외국어처럼 인식하고 있으므로 현재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다. 제주어로 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를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요약하여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학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하는 음성자료의 소장처, 컬렉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또한 필요하다. 동영상 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에 ‘영상길이’ 정보와 타임코드(Time Code)별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녹취록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분별 콘텐츠 접근이 어렵고, 영상전체를 시청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따라서 다양한 주제, 성격, 유형, 출처의 문화자원 수집에 앞서 통합적인 자료 정보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설계가 요구된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소장자료의 원활한 관리·서비스를 위해 공통메타데이터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안한 네트워크 기반 제주학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되, 되도록 많은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수메타데이터는 최소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중심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살펴본 사례기관의 메타데이터와 로컬리티 기록화 관련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문화자원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제주학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제주학아카이브 통합메타데이터(안)

기술요소		설명	
영역	항목		
기본영역	식별번호	제주학아카이브 문화자원 관리번호	
	표제	자료명	
	내용	주요내용	
	생산자	생산자명 (기관/개인)	
	날짜	생산, 발행, 배포 날짜	
	크기/분량	자료의 규모, 파일포맷, 분량 등	
	언어	기술된 언어	
	기록물 유형	5개의 기록물 유형 중 택1 문서/이미지(사진)/음성자료/동영상/웹 정보	
	기록물 형태	기록물 유형별 하위형태 중 택1	
	원본소장처	원본 자료의 소장처	
	기증자	기증자명 (기관/개인)	
	권한관계	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등 관련사항	
	공개여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	
	관련자원	관련성이 있는 소장자료, 링크주소 등	
주기	보충설명, 이용정보, 자료의 물리적 상태 등		
추가영역	도서관행 물류	발행/출판	발행처, 출판사 등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표(KDC)에 따른 분류
		도서번호	ISBN, ISSN 등 국제표준도서번호
	구술 /영상채록	목차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의 목차정보 (TOC파일 참조)
		구술자	구술 참여자
면담자	구술 진행자, 면담 책임자 등		
구술일시	구술채록을 한 일시, 면담 소요시간 등 (면담횟수별 구분)		
내용영역	분야	현재 제주학아카이브 분야별 정보 중 택1 (한국십진분류법)	
	영역	분야별 하위영역 중 택	
	주제	문화자원, 지방역사, 정치와 행정, 종교와 문화, 일상생활 중 택	
	하위주제	주제별 하위영역 중 택	
	업무기능	연구센터 업무기능 대/중기능 중 택	
접근영역	시대	12개 시대구분 중 택	
	시기	시대구분별 하위 시기	
	지역	광역·시·군 지역 구분 중 택	
	공간	지역별 하위 읍.면.동	
	사람	주요 인물	
관리영역	수집유형	기증, 기탁, 생산, 구매, 자료공유 중 택1	
	수집형태	원본, 사본, 목록, 링크, 기타 중 택1	
	이벤트이력	수집 및 이관일시, 디지털화 일시, 전시구성 일시 등 기록물 관리·서비스 업무 관련 이력	
	기술일시	기술 최초일시, 수정일시 등	
	기술자	기술 등록자, 수정자 등	

3) 다양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대부분의 로컬리티 기반 아카이브가 이제 기록물을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는 단계라면 제주학아카이브는 수년간 제주라는 지역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미 수집된 기록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용자를 발굴하여 이용자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제주학아카이브 웹사이트 방문자 현황을 통해 주요 이용자군으로 파악된 이용자층이 모두 연구자였다. 이들은 아카이브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연구성과물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센터가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이전부터 이른바 ‘고정 고객층’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아카이브를 비롯한 문화기관에서 연구자 이외의 다양한 이용자층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제공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기도 한다.²⁶⁾ 제주학아카이브는 디지털아카이브로 운영되는 플랫폼이지만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아카이브의 기록물을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이용자별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용자 프로그램은 각각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콘텐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이어야 한다.

연구센터의 사업들 중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출판사업들

26) 온라인으로 시민대상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때 수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생산된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기도 함.

도 있었지만 기록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주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타깃 이용자층을 연구자는 물론 제주시민, 제주도민, 한국인,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제주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까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 같은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아카이브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용자로 고려할 수 있겠다. 이들이 제주 지역의 역사나 역사기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일본 후쿠이 현문서관의 경우 연구자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원적 시각에서 후쿠이 역사와 역사자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고문서를 지역민들이 수준별로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²⁷⁾

〈표 9〉 일본 후쿠이현문서관 교육·연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기	구분
고문서입문 초급강좌	-	교육
고문서 독해강좌	-	
고문서 상담	-	
강연회	2월	
지역사 강좌	1~2월	
기록보존연구회	7월	연구

특히 후쿠이현문서관은 지역인물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후쿠이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업적과 남긴 기록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아카이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학자들을 발굴하여 지역민들에게 기록을 매개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한 정

27) <https://www.library-archives.pref.fukui.lg.jp/bunsho/index.html>

보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인물문헌자료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후쿠이의 기억을 전승하고 공유하기 위해 1928년 후쿠이역 앞 현재 최초 백화점과 가극극장 개관에 관심을 가지고 백화점과 극장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기록화하여 역사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의 기증뿐만 아니라, 제주 로컬리티와 관련한 장소, 건물, 공간,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록으로 수집하고 생산하여 지역사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나가노현립역사관은 학교를 대상으로 기록을 활용한 견학과 교구제공,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고고학 세미나, 근대사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²⁸⁾ 나가노현립역사관은 소장기록물을 학교와 공유하여 수업에서 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지원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원자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를 파견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0〉 일본 나가노현립역사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설명
초등학교	체험강좌, 매장문화재 전문가 2인 파견
중학교	지역에 대한 역사탐험 프로그램 실시(연간 7회), 전문가 파견
지역종합교육센터	지역 기록을 활용한 지역 역사의 교재화 연수 및 연수
동아리 교육활동	고문서예호회, 고문서탐방회, 고문서연습 운영

나가노현립역사관은 연구와 전시기능이 강화된 아카이브로 제주학이라는 학문적 기반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제주학아카이브에 선례가 될

28) <https://www.npmh.net/index.php>

수 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연구기능을 기반으로 전시기능을 강화하고, 초·중학생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모델로 제주학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2014년 구글 문화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를 시작한 국립국악원의 사례²⁹⁾처럼 제주학아카이브에서의 온라인 전시 중 특히 동영상을 이용한 전시의 경우 유튜브를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콘텐츠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브에 직접 업로드 하거나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자료의 링크를 통해 전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안한 표준 메타데이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온라인 전시에 대한 설명과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상세하게 제시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제주학아카이브를 통하지 않고도 구글 검색으로 개별적인 콘텐츠를 쉽게 찾아 접근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을 경험하고 나서 제주학아카이브를 알게 되어 구글 검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주학아카이브를 통해 기록물을 검색하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상 외국인들의 접근이 쉽도록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이용하여 콘텐츠 각각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제주학아카이브가 소장한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손쉽게 온라인 전시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글의 플랫폼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접근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국악원은 정리와 등록이 완료된 소장 자료 중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변환된 디지털 파일을 공개하여 기본적으로 웹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는

29) 노예리, 「한국 전통음악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국악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9집, 2017, 43~82쪽.

기록물에 한해서 절차를 통해 다운로드하게 한다. 또한 국립국악원이 저작권을 일부 보유하였거나 자막 보완이 필요하여 부분 또는 비공개하는 기록물의 경우, 이용성 확대를 위해 아카이브 포털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유튜브의 경우 전체 영상이 아닌 ‘맛보기 영상’을 업로드 하여 세부정보 내 링크를 통해 아카이브 포털로 이용하여 전체를 관람하는 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동영상은 디지털아카이브에 직접 업로드하여 서비스할 것과 유튜브를 통해 전체 영상 서비스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구분하고 디지털아카이브로 직접 업로드하는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아카이브로 연계될 수 있도록 클립 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4) 저작권 관리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수집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자(인접권자)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체공개나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준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들은 기준자와의 양도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주학아카이브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갖게 되며 기준자가 직접 제작하고 실연한 기록이 아니라면 실제 기록의 저작권자(인접권자)는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제주학아카이브가 수집기록물 중 저작권을 확보한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과 제4유형으로 공개될 수 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와 제주학아카이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학아카이브 회원인 경우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서비스할 수 있다.³⁰⁾

〈그림 7〉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을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jeju.go.kr/help/policy/copyright.htm>

연구센터는 제주학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자료 이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센터 기관 차원에서 이미 수집한 자료나 앞으로 수집하고 생산할 기록을 고려하여 저작물 관리 규정 및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센터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저작권 교육이나 제주학아카이브를 이용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표준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제주학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저작물에 대한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을 목록화하고 디지털화 하면서 메타데이터를 통해 저작권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서 기록 자체와 더불어 저작권한에 대한 정보를 기록과 연계하여 이용

30) 이치피디아의 경우 업로드를, 국립국악원의 경우 다운로드를 해당 디지털 아카이브에 회원가입한 회원들에게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저작권 유무, 저작권 확보와 비확보 표기, 공개 여부, 저작권 특이사항, 협약서 원본 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 하여 제주학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기록에 접근하여 2차 가공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고 저작권 미보유 자료의 경우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주 지역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저작권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저작권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학 연구자들로부터 개별 기증받은 자료들의 경우 건 단위로 직접 저작권자(인접권자)들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5. 결론

지금까지 로컬리티 기록화 관점에서 제주학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주학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역정체성’이란, 지리적, 역사적, 제도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센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록수집 사업을 아카이브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해왔다. 즉, 지역 주민이나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삶의 공간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 지역공동체 및 소수자 집단의 활동,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다양한 매체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공기록물의 결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과는 달리 제주라

는 로컬리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기반으로 ‘제주’와 ‘제주 사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 로컬리티를 구성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주학아카이브의 사례는 향후 여러 지역에서 신설·운영될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주학아카이브, 강원학아카이브, 전북학아카이브 등 여러 지역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학문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각 지역학 연구 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생산, 수집되는 자원들이 ‘지역학 아카이브’로 입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역대 연구산출물의 물리적 수집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학 아카이브’라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전략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개인 연구자의 개인 클라우드 또는 대학·민간 연구소의 공유스토리지 수준의 ‘연구자원 축적’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지역학 아카이브가 향후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학 아카이브의 구축 모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2014년 신설된 제주학아카이브의 운영 경험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현재의 컬렉션, 이용자, 시스템만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제주학아카이브는 수집 단계부터 제주에 소재한 여러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고민하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의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로컬리티 기반 아카이브의 ‘허브기능’ 수행을 고려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학 아카이브는 수집, 관리, 활용 면에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네트워크 기반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학아카이브가 보다 철저하게 로컬리티에

기반한 아카이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제주학아카이브 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기반 아카이브운영,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개선, 다양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수집된 자원의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제주학아카이브가 제주학 연구자들의 연구자원의 허브이자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의 중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을 구상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연구논문 및 보고서〉

- 강원학연구소,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기초연구」, 2018.
- 고순영,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2020, 115~121쪽.
- 김미숙, 정성환, 「무형문화유산 영상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수용자 반응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8호, 2012, 114~122쪽.
- 김지현,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2014, 105~126쪽.
- 김태현, 「퍼블릭 히스토리의 공론 주체에 관한 연구 : 연구자, 당사자, 시민-대중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9호, 2019, 163~206쪽.
-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 연구』, 32호, 2012, 3~44쪽.
-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2호, 2012, 317~342쪽.
- 손동유, 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호, 2013, 161~206쪽.
- 이경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호, 2015, 51~82쪽.
- 이지은, 「부산학 아카이브의 구축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논문, 2017.
- 이철남,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증자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1호, 2014, 241~266쪽.
-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1, 80~99쪽.
- 전승완, 「전북학연구소, 지역학 ‘아카이브’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2019.09.2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1481>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2012.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2016.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 지역학아카이브의 역할과 제주학아카이브의 미래」, 제주학정책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8.
- 좌혜경,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계획」, 『춘천학연구』 창간호, 2019, 61~83쪽.
- 좌혜경, 「제주학아카이브와 제주도 무형유산 자료의 구축」, 『무형유산학』, 제5권 1호, 2020, 161~192쪽.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동체 참여형 지역인문자원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 제주학아카이브를 중심으로」, 2017.
-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20호, 2016, 95~134쪽.
- 한희정, 김태영, 김용,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3호, 2016, 329~359쪽.
- 현문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2013, 127~150쪽.

<웹사이트>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강원학아카이브 구축 기초연구」, 2018.
- 경기도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
- 경북기록문화연구원 <http://www.gacc.co.kr/coding/main.asp>
- 공주학아카이브 <http://kjha.kongju.ac.kr/>
- 나가노현립역사관 <https://www.npmh.net/index.php>
- 이치피디아 <http://www.ichpedia.org/>
- 인천학아카이브 <https://idmap.inu.ac.kr/web/>
- 네이버카페 ‘공주의 일상 기록하기’ <https://cafe.naver.com/gongjuarchive>
- 제주학아카이브 <http://www.jst.re.kr/main.do>

프랑스 서쪽나라 기억여행 L'Ouest en memoire <https://fresques.ina.fr/ouest-en-memoire/>

호주 태즈매니아 주립기록보존소 <https://libraries.tas.gov.au/archive-heritage/Pages/default.aspx>

후쿠이현문서관 <https://www.library-archives.pref.fukui.lg.jp/bunsho/index.html>

ABSTRACT

A study on Area Studies Model for Locality
Documentation : A case with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tudies Archives

Lee, Jung-yeon · Choi, Hyo-jin

Locality-based archives should enable records to be collected, produced, and utilized in the region in the past or in progress. In the meantime, locality documentation has been considered mainly by local archives and local record centers. This study aimed to find ways to document locality centered on local studies archives by analyzing Jeju studies archives that are currently in service by accumulating resources collected from local studies, publications, educational products, or those processe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ocality documentation project that collects manuscripts from the private sector centered on the public records of the local record centers, and collecting the memories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in-depth research results in various academic fields about the locality we tried to find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Jeju studies archives currently in service and suggesting its improvements, the local studies archives are proposed as a platform for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users about the locality while they are the research resource hub for researchers.

Key Words : locality, locality documentation, local studies archives,
Jeju studies archives, local archives